

IV. 職業評價에 의한 機會構造의 認識

金 璞 東

<目 次>

- | | |
|-----------------|----------------|
| 1. 이론적 배경 | 4. 기회 구조인식의 변화 |
| 2. 직업 평가의 방법 | 5. 맷는 말 |
| 3. 직업평가의 시간적 변화 | |

1. 理論的 背景

직업평가에 대한 社會學的研究에서 追求해 온 理論的 爭點들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¹⁾ 첫째는 工業化에 따라 직업의 威光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社會마다 類似해지는지, 아니면 文化的 特성 때문에 공업화에도 불구하고 社會間의 차이가 남아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는 직업평가는 그것이 그 社會의 機會構造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으로 파악될 수 있는가 하는 쟁점이다.

공업화에 따른 同質化 또는 收斂의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論議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직업평가의 國際比較에서 공업화의 정도에 상관없이 複合의 인직업구조를 지닌 사회이면 그 유형이 매우 흡사하다는 결론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새로운 해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筆者는 일찌기 이 문제를 文化移入 acculturation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이른바 構造論者들 structuralists의 공업화에 따른 수렴론이나 文化論者들 culturalists의 異質性論이 모두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을 示唆한 일이 있다.⁽²⁾

(1) 직업평가의 이론적 의미에 대한 논의는 R.W. Hodge, et al., "A Comparative Study of Occupational Prestige" in R. Bendix and S.M. Lipset, eds., *Class, Status, and Power*, 2nd ed. (New York: Free Press, 1966), pp.309-321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Kyong-Dong Kim, "Occupational Evaluation, Meaning of Work, and Commitment to Industrialism: A Study of Korean Workers" 知愚邊時敏博士回甲紀念論文集 (서울: 1978), pp.321-338 참조.

(2) Kyong-Dong Kim, *Industrialization and Industrialism: Comparative Perspectives on Values of Korean Workers and Managers*, Ph. D. Dissertation, Cornell (Ann Arbor, Mich.: Xerox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 1972).

이와 같은 직업평가에 대한 文化移植的 접근이 유용한 것은 직업의 위광 평가유형이 國際間에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時間的으로도 크게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도 찾아진다. 한 社會가 공업화를 진행함에 따라 직업평가도 달라진다면 이 문제는 새로 검토해야 할 터이기 때문이다. 이번 調查研究에서는 우선 韓國社會에다 局限시키고 볼 때, 10년여의 급격한 公業화를 경험하는 동안 직업평가의 유형이 달라지는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입각하여, 우선 10년의 사이에 직업의 평가유형이 의미있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假說을 세우고 이를 實證하는 일을 먼저 시도하겠다.

그렇다면, 문제의 촛점은 직업평가는 것이 사람들의 기회구조에 대한 인식의 한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는 데로 모이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10여 년전에 얻은 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업의 〈重要性〉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社會經濟的 報償 사이에는 심각한 격차가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은 機能主義的 階層不可避論을 批判할 필요까지도 주장한 것이다.⁽³⁾ 요컨대 이번 調查研究에서 직업평가를 다시 다루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직업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한국의 근로자나 관리자들의 기회구조에 관한 인식이 10년여 사이에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려는 데 주목적이 있다. 는 것을 지적해 두고, 하나의 作業假說로서 지난 10년의 동안에 기회구조의 인식에는 별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命題를 제시하는 바이다.

2. 職業評價의 方法

이번 연구에서도 1967년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업을 세 가지 기준에 의하여 評級尺度로 평가하는 방법을 취하였다.⁽⁴⁾ 세 가지 기준은 1) 사회적 지위 즉 威光, 2) 수입정도, 그리고 3)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도이고, 각 기준에 따라 25개 직업 하나하나를 5개應答枝로 체크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지위가 〈아주 높다〉에서 〈아주 낮다〉까지, 수입이 〈대단히 많다〉에서 〈대단

(3) Kyong-Dong Kim, "An Empirical Test of the Functional Theory of Stratification: Korean Workers' Occupational Evaluation." 韓國社會學研究 第2輯 (1978), pp. 1-20.

(4) 金璟東, 李海英外, 實業教育과 職業 (서울: 서울大 文理大, 人口 및 發展問題研究所, 1970).

표 IV-1. 「사회적 지위」에 의한 직업평가의 비교 : 1967~78

직업	점수			순위		
	1967	1978	증감	1967	1978	증감
국회 의원	96.0	93.2	-2.8	1	1	0
대학 교수	90.5	88.6	-1.9	2	3	-1
법조인	89.0	90.8	+1.8	3	2	+1
회사 사장	85.2	84.0	-1.2	4	4	0
의사	80.0	81.8	+1.8	5	5	0
사회사업가	73.8	73.1	- .7	6	6	0
성직자	70.3	68.1	-2.2	7	9	-2
방송 프로듀서	69.3	71.2	+1.9	8	8	0
군장교	69.1	68.0	-1.1	9	10	-1
신문기자	69.0	71.6	+2.6	10	7	+3
교사	67.8	67.8	0	11	11	0
연예인	66.5	64.3	-2.2	12	13	-1
공무원	64.4	65.4	+1.0	13	12	+1
기사(엔지니어)	63.6	62.4	-1.2	14	14	0
회사원	57.8	57.1	- .7	15	16	-1
도매상	57.1	53.8	-3.3	16	17	-1
경찰관	51.3	58.0	+6.7	17	15	+2
간호원	50.7	51.8	+1.1	18	18	0
숙련공	50.0	47.5	-2.5	19.5	20	- .5
운전수	50.0	48.8	-1.2	19.5	19	+ .5
소매상	46.1	46.8	+ .7	21	21	0
광부	38.9	34.7	-4.2	22	24	-2
직공	35.8	37.4	+1.6	23	23	0
농어부	34.0	37.8	+3.8	24	22	+2
노동자	25.8	30.0	+4.2	25	25	0

Spearman의 순위 상관계수 = .988 (1967 × 78)

히 적다>까지, 그리고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도가 <대단히 공헌 저해>에 이르기까지의 다섯 평급尺度를 사용한 것이다.

이 다섯 평급척도상의 대답을 다시 대단히 높다(많다, 공헌크다)는 100점 상당히 높다(많다, 크다)는 80점 다음은 60점, 40점, 그리고 대단히 낮다(적다, 저해)에 20점씩의 평균 점수를 부여하였다. 다음 각 직업마다 전 응답자에 대한 평균점수를 평균내어 얻어서 이를 평균치 또는 평균치에 의한 順位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다시 말하지만, 직업 종류와 數(25개) 그리고 評點方法 등은 모두 1967년 조사와 같이 하여 비교하였다.

표 IV-2 「수입정도」에 의한 직업평가의 비교 : 1967~78

직업	점수			순위		
	1967	1978	증감	1967	1978	증감
국회의원	96.5	91.8	-4.7	1	2	-1
회사사장	94.7	92.4	-2.3	2	1	+1
연예인	91.8	84.0	-7.8	3	5	-2
의사	89.8	90.9	+1.1	4	3	+1
법조인	85.9	87.1	+1.2	5	4	+1
도매상	80.3	75.1	-5.2	6	7	-1
대학교수	79.9	80.1	.2	7	6	+1
사회사업가	70.9	71.8	.9	8	8	0
군장교	70.5	66.0	-4.5	9	12	-3
기사(엔지니어)	69.1	68.9	-.2	10	11	-1
방송프로듀서	66.1	71.2	+5.1	11	9	+2
신문기자	63.6	70.0	+6.4	12	10	+2
성직자	63.3	64.3	+1.0	13	14	-1
회사원	60.7	60.3	-.4	14	15	-1
교사	58.8	64.9	+6.1	15.5	13	+2
소매상	58.8	59.4	.6	15.5	16.5	-1
운전수	58.0	59.4	+1.4	17	16.5	+.5
숙련공	53.8	50.1	-3.7	18	21	-3
공무원	53.0	55.8	+2.8	19	18	+1
간호원	51.1	54.1	+3.0	20	19	+1
경찰관	45.6	50.4	+4.8	21	20	-1
광부	45.5	41.6	-3.9	22	23	-1
직공	35.6	37.1	+1.5	23	24	-1
농어부	30.5	42.0	+11.5	24	22	+2
노동자	26.7	30.4	+3.7	25	25	0

Spearman의 순위상관계수=.980(1967×78)

3. 직업평가의 시간적 변화

먼저, 10년여의 기간을 두고 한국의 근로자와 관리자들이 주관적으로 매긴 직업의 사회적 지위, 수입정도, 그리고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도에는 변화가 없다는 가설부터 검토하기 위하여 표 IV-1, IV-2, 및 IV-3을 준비하였다.

평균점수의 증감이 약간 나타나고, 따라서 順位上으로도 미소한 차이가 보이지만, 順位相關關係係數(Spearman의 rho)를 내어 본 결과, 세 가지 기

표 IV-3. 「경제발전 공현도」에 의한 직업평가 비교 : 1967~78

직업	점수			순위		
	1967	1978	증감	1967	1978	증감
기사(엔지니어)	86.7	83.2	-3.5	1	1	0
광부	82.0	81.5	- .5	2	2	0
대학교수	77.6	80.8	+3.2	3	4	-1
숙련공	77.0	81.2	+4.2	4	3	+1
농어부	76.1	71.1	-5.0	5	9	-4
직공	72.5	73.0	+ .5	6	6	0
회사사장	72.3	71.2	-1.1	7	8	-1
교사	71.6	72.6	+1.0	8	7	+1
사회사업가	70.0	69.1	- .9	9	12	-3
국회의원	69.7	66.1	-3.6	10	15	-5
회사원	68.7	73.2	+5.5	11	5	+5
공무원	67.6	70.5	+2.9	12	10	+2
방송프로듀서	66.7	64.4	-2.3	13	19	-6
의사	66.5	69.4	+2.9	14	11	+3
신문기자	65.8	65.7	- .1	15	16	-1
운전수	65.7	67.3	+1.6	16	14	+2
경찰관	63.8	64.0	+ .2	17	20	-3
간호원	62.7	65.0	+2.3	18	18	0
법조인	60.3	65.5	+5.2	19	17	+2
군장교	59.7	68.4	+8.7	20	13	+7
노동자	59.1	62.1	+3.0	21	21	0
도배상	52.7	49.8	-2.9	22	25	-3
연예인	52.3	49.9	-2.4	23	24	-1
성직자	51.8	54.9	+3.1	24	22	+2
소매상	50.3	50.1	- .2	25	23	+2

Spearman의 순위 상관계수 = .918(1967×78)

준 모두의 경우 .900를 넘어 의미있는 正의 상관도를 보임으로써 1967년과 78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따라서 가설은 기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총체적인 집합비교의 경우이고, 기준과 직업에 따라 10년여 사이의 변화를 보이는 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다.

예컨대, 평가기준별로 보면, 사회적 지위의 時差가 가장 작고, 수입이 그 다음이며 경제발전 공현도에서는 상당한 時間의 변화가 눈에 띠인다. 사회적 지위면에서는 신문기자가 3順位, 경찰관과 농어부가 2順位 上昇하였고, 성직자와 광부가 각기 2順位씩 下降하고 있는 정도이다. 수입면에서는 방송

프로두서, 신문기자, 교사, 농어부가 각각 2順位씩, 올라갔고, 군장교와 속령공이 3순위씩, 연예인이 2순위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경제발전 공현도에 있어서는 군장교가 7순위, 회사원이 5순위씩이나 뛰어 올랐고, 의사가 3순위, 운전수, 법조인, 성직자 및 소매상의 순위가 2단씩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순위가 역전된 경우로는 방송프로두서가 6순위, 국회의원이 5순위, 농어부가 4순위 그리고 사회사업가, 경찰관, 도매상이 각기 3순위씩 내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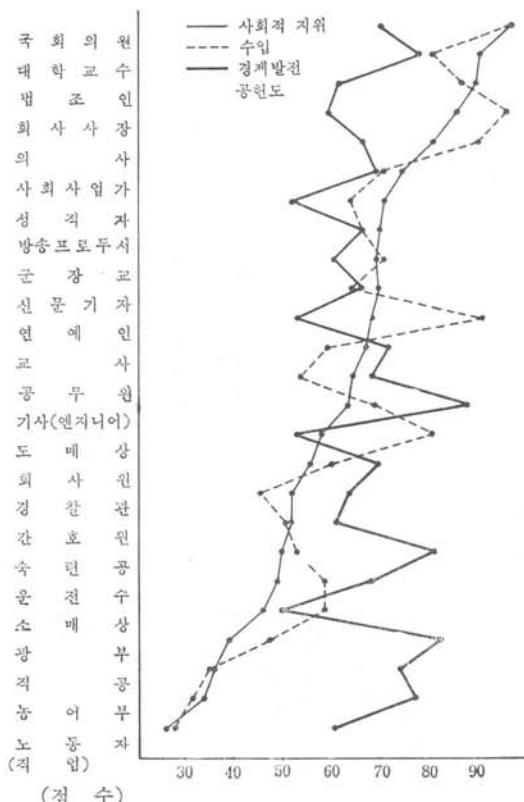
이러한 결과에서 어떤 뚜렷한 유형이나 추세를 찾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공통성을 중심으로 지지적한다면 지위나 수입면에서는 언론인들의 위치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경제발전에 대한 공현도의 측면에서는 군장교, 회사원의 중요성이 상승인식되고 반대로 공무원, 국회의원, 경찰관 및 도매상 등의 공현도 인식이 두드러지게 낮아진 것을 주목할 만하다.

4. 기회구조인식의 변화

위와 같은 시간적 변화의 有無는 그 자체로서 의미있기 보다는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따져 보는 視角이 주어졌을 때 더 의미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에 機會構造認識의 변화를 파악해 보려는 접근을 취한다. 앞에서 제시한 가설은 역시 시기적으로 기회구조 인식이 변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한 눈에 보기 쉬운 그림표를 두가지 제시한다. [그림 IV-1]은 1967년의 직업평가를 세 가지 기준별로 나타낸 것이고, [그림 IV-2]는 1978년의 것이다. 하나의 기준선으로 나타낸 것이 사회지위 또는 위광에 의한 평가점수를 折線으로 그려서 국회의원을 필두로 막별이 노동자에 이르는 순서가 한결 같이 나타나 있다. 다음이 點線으로 표시된 수입정도에 의한 평가이고, 굽은선으로 표시된 것이 경제발전에 대한 공현도의 평가이다. 1967년이나 78년의 경우 다같이 일반적으로 눈에 띠이는 것은 약간의 기복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와 수입에 의한 평가는 대체로 그 순서가 비슷하지만, 유독 경제발전 공현도의 절선은 위의 두 線에서 이탈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것도 특히 아랫부분의 직업들, 즉 생산노무직에서 그 이탈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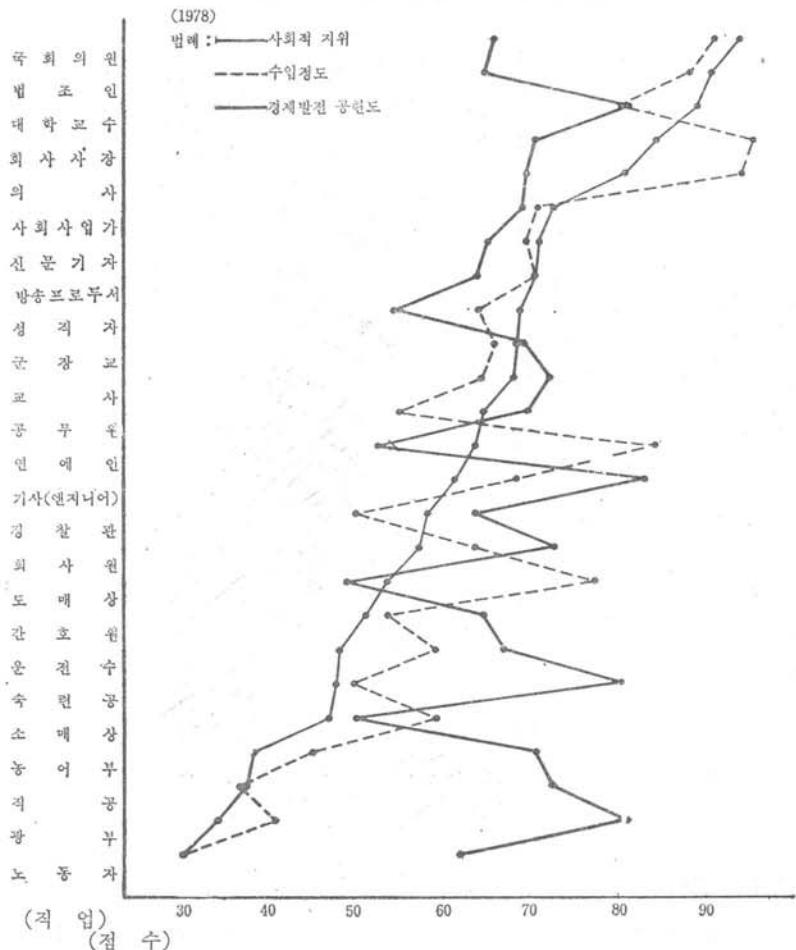
그림 IV-1. 직업평가의 3차원 비교(1967)



가 크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검토는 다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전반적인 상관관계를 살펴 보는 일부부터 시작하기 위하여 표 IV-4를 제시하기로 한다. 25개 직업 전부를 볼 때, 1967년이나 78년이나 모두 사회적 지위와 수입의 평가 순위 상관계수는 각각 .843 및 .87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적 지위와 경제발전공헌도, 수입과 경제발전 공헌도의 순위 상관계수는 매우 낮고 대개 負의 관계를 보인다. 다시 말해서 사회경제적 보상은 일률성을 보이는 반면에 그러한 보상과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이라는 뜻의 重要性과는 無關하거나 서로 負의 관계에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경향은 10년여의 공업화과정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결국 위에서 설정한 가설은

그림 IV-2. 직업평가의 3차원 비교 (1978)



이 경우에도 일단 거부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처럼 변하지 않은 기회구조의 인식이란, 사회경제적인 보상과 직업의 중요성은 서로 無關하고, 오히려 경제발전 공헌도가 높은 직업의 상당수는 사회경제적 보상면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특성으로 보인다는 데 주목할 수가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기 위해, 잠정적으로 직업의 종류를 그 사회적 지위의 순위와 성격으로 보아 셋으로 나누어 보았다. 표 IV-4에서와 같이 7개의 上位전문·관리직, 11개의 中位전문·서비스직(화이트·칼러), 그리고 7개의 기능·생산직으로 나누었을 때, 위에서 지적된 경향은 일반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특히 눈에 뜨이는 직업군은 下位의 기능 생산직군이다. 上位

표 IV-4. 직업평가기준 간 순위 상관도의 비교 : 1967~78

평 가 기 준	전 직 업		上位전문 관리직		中位전문 서비스직		下位기능, 生 산 직	
	1967	1978	1967	1978	1967	1978	1967	1978
사회적 지위 × 수입 정도	.843***	.870***	.679	.607	.473	.600	.884*	.902*
사회적 지위 × 경제 발전 공헌도	.066	-.033	.429	.143	.123	.155	.134	-.107
수입 정도 × 경제 발전 공헌도	-.108	-.143	.250	.393	-.391	-.354	-.179	-.312
N	25	25	7	7	11	11	7	7

註) 유의수준 ***.001, *.05.

上位전문관리직—국회의원, 대학교수, 법조인, 회사사장, 의사, 사회사업가, 성직자 등 7개

中位전문서비스직—방송프로듀서, 군장교, 신문기자, 교사, 연예인, 공무원, 기사(엔지니어), 회사원, 도매상, 경찰관, 및 간호원 등 11개

下位기능생산직—숙련공, 운전수, 소매상, 광부, 직공, 농어부 및 노동자 등 7개
이 분류는 1967년 「사회적 지위」 순위를 기초로하여 3분한 것임.

의 전문·관리직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적지만 일단 세가지 평가기준이 모두 正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中位의 화이트·칼라직종에서는 사회적 지위와 수입 사이의 正의 관계가 가장 얇고, 수입과 경제공헌도 사이의 관계는 가장 강한 負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대체로 전체직업의 관계와 가장 가까운, 그래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직업군은 역시 下位의 기능적·생산노무직의 경우이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전체의 경우, 사회적 지위와 수입의 일치성이나 사회적 지위 및 수입과 경제발전 공헌도 사이의 不一致度가 1967년보다 78년에 더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회구조에서 사회적 보상과 경제적 보상과의 사이의 一致度는 10년여 사이에 더 강하게 인식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보상과 중요성 사이의 不一致度 역시 더 강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직업군에 따라 약간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향은 대체로 일정하고 특히 下位직업군에서 이 점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을 간파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경제성장과 공업화의 열매가 不均等하게 配分되고 있다는 統計的인 추세와 또한 일반의 인식이 여기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업화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고 또 희생을 가장 많이 감수한 下位의 기능적·생산직

• 노무직의 보상과 공현 사이의 不一致度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크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뜻을 지닌다고 하겠다.

한층 더 구체적인 직업의 종류로 보아서 이와 같은 不一致가 두드러진 직업들을 가려 보면, 1967년이나 78년 모두 엔지니어, 숙련공, 광부, 직공 등이 가장 심각하고, 다음 농(어)부와 회사원, 노동자이다. 그런데 농어부와 노동자의 경우는 그 격차가 지난 10년여 사이에 줄어 드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회사원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는 결과를 보인다. 한편 수입과 경제공현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逆의 不一致를 보이는 직업들도 있다. 즉 경제 공현도는 낮으나 수입이 유난히 높은 직업들로서 눈에 띠이는 것이 연예인(배우, 가수 등), 의사, 국회의원, 법조인, 사장, 도매상 등이다. 이 중에서도 그 격차가 10년여 사이에 더욱 커진 경우는 사장, 국회의원, 법조인 및 도매상이라는 점은 매우 흥미있는 현상이다. ([그림 IV-1]과 [그림 IV-2] 참조).

그런데 1967년에 이러한 결과를 제시했을 때, 그것은 응답자들이 주로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노무직이나 기술적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그처럼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일종의 선입관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없지 않았다. 물론 당시에도 사무직과 중하급 관리직 종사자들이 조사대상에 들어 있었지만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번 조사연구에서는 직종과 직위에 따라 이러한 기회구조의 인식이 다른지를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수치의 복잡성에 비추어 평가점수는 생략하고 평가순위만을 중심으로 직종·직위별로 비교해 보았다. 표 IV-5의 하단에 제시된 순위상 관계수들을 살펴 보자. 먼저 직종·직위 범주들의 雙을 두고 사회적 지위, 수입, 및 경제발전 공현도별 평가순위의 상관도를 보면 직종과 직위가 서로 가까울수록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직종·직위별로 직업평가의 순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직종·직위 雙들의 사이의 유사성은 상관도의 크기로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특히 사무직과 관리행정직 사이의 상관도는 다른 어느 雙보다도 높은 것이 눈에 띠인다. 그리고 가장 거리가 먼 雙, 즉 생산노무직과 관리행정직 사이의 상관도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도 사실이다. 더군다나 이를 사이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경제발전 공현도의 평가에서 두드러진다는 것 또한 흥미있게 볼 수 있다.

표 IV-5. 직종·직위별 직업평가의 비교

직	업	사회적 지위				수입 정도				경제 발전 공헌도			
		생산 노무 직	생산 기술 직	사무 직	관리 행정 전문 직	생산 노무 직	생산 기술 직	사무 직	관리 행정 전문 직	생산 노무 직	생산 기술 직	사무 직	관리 행정 전문 직
국회 의원		1	1	1	1	2	2	1	3	5	18	17	21
법조인		2	2	2	2	3	4	4	4	9	20	16	20
대학 교수		3	3	3	3	6	6	6	7	1	4	4	4
회사 사장		4	4	4	4	1	1	2	1	10	9	11	9
의사		5	5	5	5	4	3	3	2	7	10	12	14
회사 사업가		6	7	6	6	7	9	10	12	11	11	9	12
성직자		13	10	9	7	15	13	15	11	22	22	22	22
방송 프로듀서		9	8	7	8	9	8	9	9	19	17	20	18
신문기자		7	6	8	9	10	10	11	10	13	12	19	19
군장교		10	11	10	10	14	12	12	13	6	14	13	13
기사(엔지니어)		15	14	12	11	13	14	8	8	4	1	1	1
공무원		11	12	14	12	11	17	21	20	12	15	6	7
연예인		12	13	13	13	5	5	5	5	23	23	25	25
교사		8	9	11	14	12	11	14	15	8	6	10	10
회사원		16	16	15	15	18	18	13	14	16	5	5	6
도매상		19	17	18	16	8	7	7	6	24	25	24	24
경찰관		14	15	16	17	20	20	20	21	17	21	18	17
간호원		17	18	17	18	19	19	18	19	20	16	15	16
숙련공		20	20	19	19	21	21	19	18	3	3	3	2
소매상		21	21	21	20	16.5	16	16	17	25	24	23	23
운전수		18	19	20	21	16.5	15	17	16	15	13	14	11
농어부		22	23	22	22	22	23	23	22	18	8	8	8
직공		23	22	23	23	24	24	24	24	14	7	7	5
광부		24	24	24	23	22	22	23	2	2	2	2	3
노동자		25	25	25	25	25	25	25	21	19	21	15	
(순위상관계수)						.990			.978		.711		
생산노무직 × 생산기술직													
생산노무직 × 사무직						.977			.931		.744		
생산노무직 × 관리행정직						.952			.925		.646		
생산기술직 × 사무직						.989			.960		.915		
생산기술직 × 관리행정직						.974			.958		.921		
사무직 × 관리행정직						.989			.985		.958		

그렇다면, 1967년 조사연구 결과를 두고 그것이 주로 공장노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자신들의 입장에 두둔하는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을 품는 이가 있다고 했는데, 이 점은 이번의 결과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역시 표 IV-5의 말미를 보면, 직종·직위별로 나눈 다음, 지위, 수입, 공현도의 평가기준에 따른 순위상관계수가 나와 있다.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지위가 높을수록 보상과 공현 사이의 不一致度를 더욱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반숙련 생산노무직 종사자들이 不一致度를 약하게 감지하고 있는 반면 가장 지위가 높은 관리행정직 종사자들이 그것을 가장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좀 더 자세하게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직업의 종류를 크게 세으로 나눈 다음, 각 직종·직위별로 평가의 기준 간의 상관도를 살펴 본 것이 표 IV-6에 실려 있다. 여기서도 자신의 직업적인 지위에 따라 그와 비슷한 직업들을 다른 직업들보다 더 자기 입장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직위가 낮은 이들일수록 上位전문관리직의 보상과 공현과의 상관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반면 下位기능, 노무직이 不公平한 대우를 받는

표 IV-6. 응답자의 직위별 직업종류에 대한 평가기준간의 상관도

응답자의 직위	평가기준	평가된 직업의 종류			
		전직업	상위전문 관리적	중위전문 서비스적	下位기능 노무적
관리·행정직 종사자	지위×수입	.847	.429	.391	.608
	지위×공현	-.159	.071	.001	.107
	수입×공현	-.350	.143	-.436	-.143
	지위×수입	.842	.714	.218	.750
사무직 종사자	지위×공현	-.058	.000	.009	.000
	수입×공현	-.193	-.071	-.482	-.179
	지위×수입	.873	.607	.427	.821
	지위×공현	-.045	.143	.246	-.071
생산·기능직 종사자	수입×공현	-.219	.393	-.350	-.107
	지위×수입	.881	.714	.225	.902
	지위×공현	.398	.750	.446	.001
	수입×공현	.191	.393	-.345	-.152
N=		25	7	11	7

다는 의식은 자신의 직업과는 상관없이 공통적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中位전문·서비스직에 대한 평가기준 간의 격차가 어느 직위의 사람들에게나 공통으로 강하게 의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비단 경제적 보상과 공현 간의 負의 상관관계가 큰 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보상 사이의 상관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地位不一致 status inconsistency의 현상이 의식되는 대상은 주로 中間層의 직업들이라는 것이다. 어쨋든 세 가지 범주의 직업에 걸쳐서 비교적 지위불일치현상을 강하게 의식하는 집단은 下位의 기능직이나 노무직 종사자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직장내 직위가 높고 높은 학력을 요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라는 사실은 주의해서 마땅할 줄 안다.

여기에 걸들여 이미 필자가 1967년 조사결과를 가지고 주장했던 바대로, 비록 의식과 태도의 차원이기는 하지만, 직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상이 그 직업의 중요성과 일치한다는 機能主義的 계층이론의 타당성이 일단 재고되어야 한다는 증좌가 이번 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났다고 하겠다. 더군다나 이러한 不一致의 의식이 지위나 학력이 높은 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도 이번에 확인한 것은 의미있는 일로서 앞으로 더 깊은 연구검토가 요구되는 문제라 하겠다. 특히 이런 현상을 階級意識이라는 문제와 관련시켜 理論的인 關係를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5. 맺는 말

위의 3과 4에서 살펴 본 결과를 가지고 그 社會學的 및 政策的 含意를 잠시 생각해 본다고 하면, 공업화가 활발하게 전개된 지난 10년여의 기간에 한국 근로자들의 일과 직무에 대한 협신몰입도나 직장·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과, 기회구조의 인식에서는 비록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지만 오히려 더 강한 地位不一致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공업화를 주축으로 하는 경제성장의 결과 사람들의 일에 대한 의식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는데 이들에게 계속 공업화—경제성장에 협신하도록 도와 주는 誘引體制에는 별반 중요한 개선이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기회구조라는 측면에서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인식된다는 점은 장차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야만 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심각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가 있다고 본다.⁽⁵⁾

직장과 직무환경을 중심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직장과 직무에 대한 만

(5) Kyong-Dong Kim and Hae Young Lee, "The Meaning of Work and Labor Commitment in Korea" *Social Science Journal* (UNESCO-Korea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Vol.V, No. 1 (1978), pp. 74-84.

족도와 적극적 連坐感은 그 직장의 社會的 物理的 여건들과 매우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특히 노사관계의 특성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노동정책에 새로운 問題意識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다음으로는 이번 조사연구에서 특별히 다룬 노사관계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